

새책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날개야 돌아라, 한 번 더 날아 보자꾸나

##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어머니는 감쪽에서 곁이 나오면 방짜에 두었던 물병으로 벌물을 마시곤 했지요. 별갈게 달아오른 얼굴이 관자놀이까지 놀러온 모자 아래로 알갛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살다시피 하는 어머니. 자식들 학비 마련을 위해 바다에 뛰어든 거지요. 애오라지 한 대야를 채우곤 했지만 어머니 허리는 더 굽어보였다.

**애오라지** : '겨우'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자가 애오라지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나, 또 '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도 쓰이죠. (그의 웅장한 표정이 애오라지 미순이 자기의 문제 때문만이 아님을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 <이문희, 흑백>

**관자놀이** : 귀와 눈 사이의 맥박이 뛰는 곳. 그곳에서 맥박이 뛸 때 관자가 움직인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할아버지는 하상의 관자놀이를 굵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다.) <한무숙, 만남>

**감쪽** : 철물 때에만 드러나 보이는 넓고 평평한 모래밭판.

**벌물** : 맛도 모르고 마구 들이켜는 물. (저 물을 건너느니, 차라리 저걸 벌물로 다 들이켜는 것이 더 쉬울 성 싶었다.) <한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안명옥(시인·고양에고 문예창작반 강사)

##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 이상작 '날개'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죠. 이 작품은 뒤바뀐 삶과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려는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으로 잘 표현한 초현실주의 단편소설이죠. 1936년 <조광> 9월호에 발표된 단편으로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와 아내가 등장하죠. 자아 분열의 의식 속에서 본래의 자아를 찾으려는 인간의 내면 의지가 아닐까요. 심리주의 소설이기도 한 이 소설은 고백적이면서도 상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소설에 등장하는 나는 경제적, 사회적, 성적으로 아내보다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세당한' 남편이죠. 날개의 소설을 꿈꾸며 사회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사람이지요. 아내는 남편보다 우월한 존재로, 종속 상태에 놓여 있는 남편 위에 군림하는 가학적인 여성이죠. 이 작품에서 작가는 무얼 말하려고 했을까를 곰곰 생각하며 읽어야 해요. 그래야 날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지식 청년인 '나'는 유쾌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은 33번지 187구 중 대문간에서 일곱째 칸에 있는, 발이 들지 않는 뒷방에서 늘거나 밤낮없이 잠만 자면서 아내에게 사육된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현실 감각이 없

만, 187구 중에서 제일 작고 아름다운 아내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내가 외출하고 난 뒤에 '나'는 아내가 쓰고 있는 아랫방으로 가서 동쪽쪽 로 난 창문을 열어 놓고 화장품 냄새를 맡거나 돌보기를 화장지를 태우면서 아내에 대한 욕구를 대신한다.

어느 날 돈이란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나'는 아내에게서 받은 은화를 넣은 병어리저 금통을 변소에 버리고 아내의 발 외출을 틈타 외출을 한다. 그러나 다리가 아파 걷다지 못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돈을 아내 손에 쥐어 주고

## 1930년대 모더니즘 대표작 일상 탈출 · 자아 확인 그려

아내의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잔다. 낮잠을 자다가 아내에게 흔들려 깨어난 '나'는 아내가 쥐어 주는 돈을 가지고 경성역 대합실 옆 다방에 있다가 비를 맞고 자정을 기다린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 아내의 매을 현장을 목격하게 되며, 그로부터 여러 날을 앓아 눕는다.

머리를 앓아누웠던 '나'는 아내가 주는 약을 받아먹고 잠에 취한다. 그 약이 감기와 아스피린인 줄 알고 지내던 '나'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아내의 방에 갔다가 그것이 수면제 아달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주머니에 '아달린'을 넣고 외출을 하여 아내가 밤낮 나를 재워 놓고 무엇을 하려

했는가를 생각해 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은 돈을 문지방에 놓고 도망쳐 나와 거리를 쏘다 나뉜 끝에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 스물여섯 해의 과거를 회상한다. 이 때 정오의 싸이렌이 울고, '나'는 '날개야 다시 돌아라,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라고 외쳐 보고 싶어진다.

나의 외출과 그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것이 이 작품을 더 잘 읽는 비결이에요. 이 작품은 현실에서 이미 거세당한 자가 자신의 자리나 자신을 되찾지 못하다 그것을 의식하는 과정을 난해하고 파격적인 형식으로 엮고 있어요. 마지막 대목의 '날개의 비상'은 분열된 자아를 결합하고자 구원을 꾀하는 실존의 의지로 보여요. '나'와 아내의 종속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소유에서 일단 풀려나온 '나'는 다시 아내가 쳐 놓은 시간에 감금되거나 자정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의 외출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자아를 되찾게 되죠. 드디어 수면제를 확인하고 '나'는 아내와의 일상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죠. 마지막 외출을 통해서요.

아내가 지정한 자정의 시간과 반대쪽인, 마지막 외출에서 맞는 정오의 사이렌은 강요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계기가 되죠. 대낮의 정점으로서의 정오는 아내와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전환점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 보려는, 일상에서의 탈출의 욕망이며, 진정한 자아의 확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안명옥(시인·고양에고 문예창작반 강사)

##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e-메일: rolling@paran.com)

## 제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어른들은 왜 아니라고 할까요?

왜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옳은 것 같은데 어른들은 아니라고 할 때 너무나 답답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ID: godfather11)

## 누구든 다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잘못한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옳다'는 아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내 곁에 두려 하고,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멀리하려 합니다.

사실 진정 '나'를 위해서라면 내 뜻에 맞지 않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둘 일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의 어리석음은 아상을 일깨우는 참으로 소중한 스승임을 음미로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의 생각도 받아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의미하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옳을 수도 있는 만큼 그릇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옳은 내 생각이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고집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 주관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든 상대의 생각이든 둘 다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혹은 절대적으로 그르다거나 하고 옳고 그름을 고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룰 수도 있고 저릴 수도 있을 때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때를 그렇게 생각이 특 터져 자유로워지도록 해봅시다. (법사주주전남)

# 당뇨병 2차

## 당뇨병 전문연구가 이부경원장의 세계가 경탄할 당뇨병 퇴치 특별세미나

당뇨병은 고칠수 있는데 왜 못고치고 있나? → 진정한 원리를 모르기때문  
- 30년 집념의 연구끝에 얻어낸 신비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 -

**당뇨병 퇴치 세미나 주요골자**

국내 저명인사들의 당뇨 퇴치사례를 곁하여 ...

- 당뇨병 왜 못고치고 있나!
- 모든 질병의 원인이 하나이듯 당뇨병의 원인도 하나!
- एंteri 치료법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 재발 가능성, 합병증의 염려없는 확실한 당뇨병 치료법
- 당뇨병 치료는 속어서도, 속아서도 안된다.
- 천지가 진동할 충격적인 당뇨병 원인과 당뇨병 치료법

**이 한번의 강의 듣고 실천하면 당뇨병은 곧바이!**

(이부경원장의 당뇨병 퇴치 강의 실적)  
국내초청: 농림부, 환경부, 전매공사, 농협, 농림협력, 농촌진흥청, 공무 원고육원, 새마을 연수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청주교육대학, 각 기 도와 단체수련회, 개교희곡강, 주부교실, 부산일보, KBS, MBC 등 수백회 해외초청: 미국, 중국, 브라질, 대만, 홍콩

주요저서: 불치병 없는 세상, 건강혁명, 불치병을 정복하라, 노벨상급의 건강박사, 내 사전에 불치병은 없다, 기미 여드름 치료법, 당뇨대란을 막아라, 시집: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등 기타...

천지가 진동할 충격적인 건강 칼럼 연재 교원연합신문, 한국교회신문, 월간목회, 자연과 건강, 농업 새농민지, 공공정책, 한국발명저널, 코스타 모델러 등 다수

※ 본세미나에서는 당뇨병 및 고혈압에 관한 질의 응답시간이 주어집니다.

▶ 일시 2007년 10월 17일(수), 19일(금) 오후 2시  
▶ 장소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코스모홀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출구 (멀티도구 지참)

예약접수 : 02-466-1115  
※ 문의하시는 모든 분들께 당뇨병 치료용 소책자를 무료송부  
☆ www.bkcure.com ☆

# 제5회 대원상(大圓賞) 시상 안내

◆ 시상 요강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이신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5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불행 종료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구보리 화해중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시상 부문 - 대상: 승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 특별상: 약간 명(및) -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재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단체 부문 1곳 - 상패 및 상금 2,000만원.

◆ 수상자 선정  
① 대상 승가 부문은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수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특별상 부문은 추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특별상은 접수한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중에서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승은 불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수상 후보 추천 접수  
①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일반 추천 접수와 '대원상수상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한 추천 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② 재가 부문 수상 후보자 본인이 직접 추천할 수 없고, 단체 부문도 수상 후보 단체의 대표자임원 등이 직접 추천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④ 각 부문 수상자는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 선정합니다.  
⑤ 후보자들이 일정 자격수준 혹은 불교 포교 활동 공적이 본 상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제5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관련 부문 실적 자료 첨부.

◆ 서류 접수 및 문의처  
① 접수 기간: 2007년 10월 1일 ~ 10월 31일.  
② 접수 및 문의처: 본 원 사무국,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02)719-1855, 2606 홈페이지: www.kbpf.org / e-mail: dabopia@kbpf.org  
③ 접수 방법: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당일차 소인 유류)

◆ 시 상 - 시상일: 2007년 12월 7일(금) / 시상 장소: 추후 개별 통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홍승희